향토 문화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과 우이도(牛耳島) 상산(祥山)

編 輯 者

해동국(海東國) 휘어 감은 초록빛 드넓은 치마폭에 점찍어 수놓아진 그래서 누구나 눈 여김 없이 지나쳐 버리는 외로운 섬! 소귀처럼 오뚝 솟아 우이도(牛耳島)라고 불렀는지, 쓸모 없는 소귀처럼 생겼데 서 우이도라고 했는지, 옛날 옛적 신라와 당나라간 교역이 성행했을 때 번창했는지도 모를 우이도, 이 섬은 목포에서 33마일, 도초에서도 8마일이나 떨어진 서남 해상의 27개 외로운 섬 가운데 5개 섬이 유인도며, 이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우이도이다.

신라말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선생이 당나라를 왕래할 때에 이 섬의 북쪽에 서 있는 상봉에 도착했다. 고운 선생은 조국 신라에서 보다는 중국에서 먼저 문장가라는 명성을 크게 떨쳤다.

어렸을 때 그는 그의 어머니가 금돼지에게 납치 당한 후 10개월만에 그를 낳았다고 전한다. 출생 후 부모들은 아이를 보자기에 싸서 바닷가에 버리니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 아이를 키우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데려가려고 할 때에 아이는 홀연히 바다 가운데 바위에 앉아 글을 읽고 있었으며, 그 때 백발 노인이 나타나 말하기를 "이 아이는 본래 하늘의 아이인데 잠시 인간 세계에 내려와 최씨 집안에 인연을 맺게 되었다. 태어난지 석달 만에 말을 하고, 걸을 수 있으나 의지할 처소가 없어 걱정하노라"라고 하였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바닷가에 나와서 아이를 위해 월영대와 망월루를 만들어 주었는데 하늘에서 학자들이 많이 내려와 그를 가르쳤으며, 고운 은 쇠 지팡이로 모래 위에 글씨를 연습했다고 전한다. 말년에는 조국의 국운을 바로 잡기 위해 당으로부터 귀국하지만 이미 기울어 버린 국운을 다시 일으키지 못하고 뜻을 세우지 못한 채 외롭게 생애를 마친다. 이렇듯 하늘에서 온 天子가 도착한 우이도에는 때마침 한발이 극심하였는데 고운 선생을 본 주민들은 가뭄을 물리치고 비를 내려 주도록 간청한다. 고운 선생은 즉시 북해 용왕을 불러서 가뭄을 해결하라고 했으나 옥황상제의 명령이 아니면 용왕이 마음대로 비를 줄 수 없다고 난색을 표한다.

용왕의 말을 듣고 고운 선생은 화를 벌컥 내면서 속히 비를 내리라고 호령하였다. 기가 꺾인 용왕은 하는 수 없이 고운 선생의 명령대로 비를 내려 가뭄을 해결했다.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는 뒤늦게 보고를 받고 얼굴에 경련을 일으키도록 흥분을 하더니 용왕을 잡아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고운 선생은 용왕을 도마뱀으로 변장시켜 선생의 무릎 밑에 감추었다가 옥황상제의 진노가 꺼진 뒤 다시 용왕으로 보내서 당나라를 왕래할 때 수호신으로 썼다고 한다. 그 후 고운 선생은 당나라로 떠났는데 선생이 머물면서 상산봉 제2봉 바위에다 바둑판을 만들어 신선과 바둑을 두었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 오고 있다. 바둑판의 흔적은 현재까지 남아 있다.

또한 고운 선생은 당시를 기념하기 위해 철마와 은 접시를 놓아두고 갔는데 은접시는 주민들이 가져 갔고, 철마는 계속 내려오다가 고인이 된 주민 문모씨가 대장간에 가지고 가 용도를 변경해 쓸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산을 탕진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 후 철마마저 종적을 감추어 버렸다고 한다.

우이도 상산(牛耳島 祥山)의 이야기는 전설(傳說)이 아니다.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澤里誌)를 참고하면 고운(孤雲) 최치현(致遠), 김가기(金可紀), 최승우(崔承佑)는 모두 상선을 따라 당에 들어가 과거에 급제했다.

고운(孤雲)은 고병(高駢)의 막료가 되어 사육문(四六文)을 잘하였는데, 지금 여문(儷文)에 실린 황소(黃巢)의 격문(檄文)은 곧 고운의 문장이다.

고운은 김, 최 두 사람과 같이 신천사(申天師)를 종남산사(終南山寺-우이리 상산)에서 만나 내단(內丹-신선이 되는 비결) 비결을 얻어 후에 동국에 들어와서 모두 수련(修練)하여 선술(仙術)을 참으로 깨달았다 한다.